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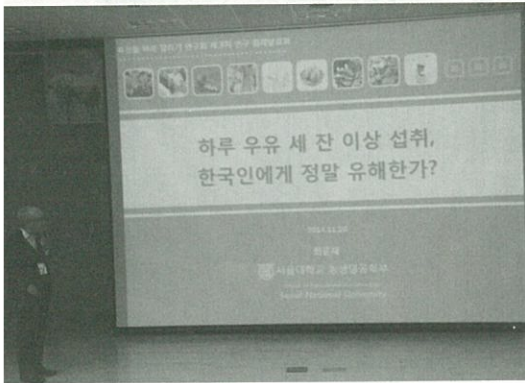
축산물 바로알리기 연구회 월례발표회

- 안티밀크 · 안티축산에 관한 열띤 토론 벌어져

지난 11월 20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축산물 바로 알리기 연구회’의 제3차 연구 월례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 1부에서는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주선태 교수의 “고기의 영양성과 건강학” 강연이, 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최윤재 교수의 “하루 우유 세 잔 이상 섭취, 한국인에게 정말 유해한가?”에 대한 주제강연이 이어졌으며, 대형 강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주선태 교수는 1부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섭취량은 이제 막 43kg에 진입하였고, 미국의 경우 이의 3배가 넘는 120kg가 넘는지 오래라며 육식이 현대인의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이라는 미국의 연구결과를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육류섭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2부 강연자이자 본 연구회 회장인 최윤재 교수는 최근 화제가 된 스웨덴 욥살라대학의 ‘하루 우유 세 잔 이상 먹으면 사망 위험 커진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반박발표를 했다. 최



교수는 한국인의 1일 평균 우유 섭취량은 스웨덴보다 약 2.7배 정도 낮은 정도인 반 컵이 채 안되는 79.3g이며, 스웨덴과 국내 우유의 영양·노년층의 탄수화물 과다섭취, 단백질·지방이 부족한 식단 불균형 등 근거를 제시하며 이 연구결과를 한국인에게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오히려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 중에서 청소년기부터의 지속적 우유섭취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을 장년·노년기에 한정하고 있는 문제와 조사그룹 간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충분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역인과성 오류의 가능성과 갈락토오스 섭취가 인체에 산화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아직 부재하여 이번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축산물 바로알리기 연구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안티축산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마스크업의 잘못된 정보들로 축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축산분야 대응책의 일환으로 7월 18일 발족되었다. 본 연구회는 매달 월례발표회와 연2회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안티축산에 대응한 학술연구와 토론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http://www.livestocklove.or.kr>에서 연구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거시적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적 고찰이 없는 자극적인 보도는 국민 전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및 종합적인 논의를 통한 즉각적 대응과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가 절실한 지금, 축산물바로알리기 연구회와 안티축산에 대해 축산업계의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